강스템바이오텍, '바이오 USA' 참가

줄기세포 치료제 기술수출 가속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협상 진행
글로벌 제약사에 전문성 발표도

강스템바이오텍은 3일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개발 마무리 단계인 줄기세포 아토피 치료제 '퓨어스템 AD주'는 물론 개발 중인 류마티스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 RA주' 등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수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바이오 USA'는 3~6일(현지 시간)까지 나흘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이번 행사기간 중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줄곧 관심을 표명해온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30여건의 심도 깊은 미팅을 통해 '퓨어스템 AD주'와 '퓨어스템 RA주' '퓨어스템 CD주' 등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수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4일에는 코트라(KOTRA) 주최 '코리아 바이오텍 파트너십(Korea Bio-Tech Partnership) in US 2019 (KBTP 2019)' 행사에서 라이선싱 프레젠테이션 발표 기업으로 선정되어, 참가한 글로벌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강스템바이오텍 고유 기술의 전문성과 우수성에 대해 발표한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세계 최초 아토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 '퓨어스템 AD주'가 국내 임상 3상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20년 유럽임상 2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바이오 USA'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토피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 '퓨어스템 AD주'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나프로임신센터 의료진인 비뇨의학과 김선욱 교수, 산부인과 이영 교수(나프로임신센터장), 안종배 신부(영성부원장), 산부인과 길기철 교수(앞줄 왼쪽부터)가 나프로 임신 100건 달성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프로' 자연임신 성공 100건 달성

여의도성모병원
질 분비물 관찰해 가임력 높여
심리 상담 등 다학제적 접근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나프로(Napro)임신'이 자연임신 100건을 달성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 2016년 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프로 임신법 도입 후 2017년 3월 첫 출산에 이어 지난 4월부로 임신 100건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나프로임신법이란 자연적인 임신(natural procreation)의 합성어로 여성 스스로 질 분비물을 관찰하여 가임력과 관련된 이상을 찾아내어 교정한다. 남성의 경우 생식관련 질환을 파악하고 치료하여 가임력을 높여 자연임신을 유도한다.

임신 100건 주인공은 조씨(33세). 올해 결혼 6년차인 조씨는 생리주기가 매우 불규칙하여 난임병원을 방문하여 배란유도만 시행해보던 중 나프로임신법을 알게 되어 기본교육을 마친 후 1년여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

조미진 간호사는(나프로임신센터 프렉티셔너) "조씨는 지속적으로 질 분비물을 관찰기록하고 본인의 가임기를 잘 이용하여 임신한 케이스" 라며 "그러나 질 분비물에 대한 관찰기록만으로는 난임의 원인을 진단내리는 것이 쉽지 않아 체계적인 난임검사를 통하여 원인을 진단하고 교정하면 가임력이 향상되어 자연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질분비물 관찰기록법인 '크라이튼 모델시스템(CREIGHTON MODEL System)'을 기반으로 점액분비, 배란, 나팔관, 복강내 구조, 호르몬 문제 등의 난임의 원인을 진단내리고 이에 대한 내외과적인 나프로치료, 비뇨의학과 상담 및 치료, 전인적인 차원의 심리상담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가임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나프로임신으로 현재까지(2016년 1월부터 누적) 진행중인 385쌍에서 103건 임신(중복임신 6건 포함)에 성공했다. 임신 성공률은 26.8%로 체외수정 성공률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치다. 나프로임신법을 이용한 임신 100건을 분석한 결과, 최고령 임신은 만 46세, 시험관 등 인공시술 경험이 있는 경우가 58%, 시험관 경험은 최고 8회였다.

난임의 원인도 다양했다. 나프로임신법 적용 후 난임 진단결과는 ▲경부점액부족, ▲황체기결함, ▲배란부전 순으로 많았다. 나프로임신센터에서 실시한 치료는 ▲단순 생리주기 관찰기록(크라이튼 모델 시스템) ▲점액증진요법 ▲배란자극요법 ▲황체기호르몬 보충요법 ▲난관통수검사 등이다.

산부인과 이영 교수(나프로임신센터장)는 "나프로임신법은 난임 부부가 겪는 육체적·심리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난임치료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며, 산부인과적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는 평생 여성 건강관리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편의점 도시락, 너무 짜…
1日 나트륨 권장량 '절반 이상'

식약처, 편의점 도시락 나트륨 조사
CU〈이마트24〈미니스톱 順으로 낮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일환으로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시판 도시락에 대한 나트륨 등의 함량 정보를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나트륨 줄이기 등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저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 체인망을 가진 편의점(5개 업체)과 도시락 전문점(3개 업체)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63개 제품(편의점 51개, 도시락 전문점 12개)이다.

조사 결과, 시판 도시락의 1회 제공량 당 나트륨 함량은 479~2038mg 범위였으며, 평균 1237m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1일 나트륨 권장섭취량(2000mg)의 62%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GS25의 오무라이스 & 커리 도시락으로 1회 제공량(460g)당 2038mg이다. 특히, 편의점 판매 51개 제품의 1회 제공량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34mg으로 도시락 전문점 12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 823mg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잡계됐다.

편의점별 평균 나트륨 함량은 CU가 판매하는 도시락이 1138mg (653~1644mg)으로 가장 낮았고, 이마트24 1186mg(700~1,871mg), 미니스톱 1341mg(875~1863mg), 세븐일레븐 1499mg(750~1903mg), GS25 1527mg(1187~2038mg) 순으로 조사됐다.

도시락 전문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낮았다. 오봉도시락의 돈까스 도시락은 1회 제공량(391g)당 479mg으로 가장 낮았고, 토마토도시락 857mg(831~884mg), 한솥도시락 927mg(718~1130mg) 순으로 조사됐다. 식재료에 햄과 소시지가 포함된 도시락(27종)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450mg(981~2038mg)으로 그렇지 않은 도시락(36종, 1077mg)에 비해 높았다.

식약처는 도시락을 선택할 때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햄과 소시지, 절임류 등 식재료가 적게 들어 있는 도시락을 선택하고, 소스류는 따로 제공되는 제품을 선택하여 찍어먹거나 입맛에 맞게 조금씩 뿌려 먹는 것이 좋다.

식5약처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GS25, 이마트24 등 관련 업계는 도시락의 나트륨 저감을 위해 ▲나트륨 자체 기준 설정 및 관리 ▲나트륨 저감 도시락 개발 ▲건강 도시락 판매대(zone) 운영 등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눈가주름, '메디톡신'으로 개선 가능

메디톡스, 식약처 적응증 추가 획득

메디톡스는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눈가주름(외안각주름)개선에대한 적응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적응증 추가로 '메디톡신'은 총 5개의 미용 및 치료 목적 적응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만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중등 및 중증의 눈가주름(외안각주름) 개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신은 이번에 추가된 눈가주름 개선 외에도 ▲20세 이상 성인에 있어서 뇌졸중과 관련된 상지 국소 근육경직 ▲2세 이상의 소아 뇌성마비 환자에 있어서 강직에 의한 첨족기형의 치료 ▲18세 이상 성인에 있어서 양성 본태성 눈꺼풀경련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에 있어서 눈썹 주름근, 눈살근 활동과 관련된 중등도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 등의 적응증을 갖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적응증 획득은 오랜 기간 시술되며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메디톡신의 활용분야가 눈가 주름으로 확대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재 '메디톡신'이 확보하고 있는 적응증 외에도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추가 적응증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 취임

편욱범 이대서울병원 병원장이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19년 6월 1일부터 2년이다. 편욱범 병원장은 지난해 개최된 대한고혈압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제26대 이사장에 선임된 바 있다.

편 신임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은 1990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2004년부터 이화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이대목동병원 응급진료부장, 심장혈관센터장, 심혈관계 중환자실장 등을 맡아 환자를 돌봐왔으며, 올해 2월 개원한 이대서울병원 초대 병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지난 1994년 창립 이래 전문 학술 단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및 정책 개진을 통해 국민 인식 제고와 고혈압 관리에 노력해 오고 있다.

/이세경 기자